



화재보험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 전개

한 국화재보험협회는 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이 12월 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, 2011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추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 임직원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.

▲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대상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12월 중 발송하고, ▲서울·부산·대구·대전·광주·인천·수원 등 화재보험협회 지부가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‘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안내문’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12월 23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, ▲ 12월 30일에는 전 임직원이 성공적인 시행을 기원하고자 대전에서 계룡산 등반 행사를 가졌다.

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무료 화재안전점검을 받고,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-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건물
-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,000㎡ 이상 건물
-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,000㎡ 이상 건물
-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,000㎡ 이상 건물
- 휴게음식점·노래연습장업·PC방업·게임제공업·일반음식점업·단란주점업·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,000㎡ 이상 건물
-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





『제3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』 개최

한 국화재보험협회는 12월 22일(수)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, 손해보험사 및 소방단체 대표, 소방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, 전국의 우수 소방공무원을 선발·표창하는 『제3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』을 개최하였다.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충북 영동소방서의 허창구 지방소방장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여 상패 및 부상과 1계급 특진이 주어지며, 안전상은 서울 강서소방서 전형돈 지방소방교 등 12명이 수상하여 상패 및 부상과 1계급 특진이 주어졌다. 봉사상은 서울 동작소방서 전홍철 지방소방교 등 5명이 수상하여 상패 및 부상과 승진인사 가점이 주어지며, 수상자 전원은 부부동반으로 하얏트호텔에서 1박했다. 올해로 37회를 맞는 소방안전봉사상은 지난 1974년부터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범 소방공무원들을 선발·표창하는 행사로서, 올해까지 수상자는 모두 513명에 이른다.